역사를 바꾼 한 장의 지도

글 | 김경렬 _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krkim@snu.ac.kr

1578년 어느 봄날 아침 칠레의 미항 발파라이소에 100톤 정도의 작은 범선 한 척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페루에서 노략질한 금과 은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스페인 범선의 선원들은 당연히 스페인 범선이라 믿으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다. 남아메리카를 지나 태평양으로 나오는 항로는 스페인 범선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놈들, 빨리 꺼져!"라는 호통 소리와 함께 우르르 배에 올라탄 20여 명이 내미는 소총 앞에 정신이 바짝 든 선원들은 혼비백산해 바다 속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으로 나온 후 땀도 흘리지 않고 처음으로 배와 온갖 보물을 고스란히 빼앗은 해적 두목은 후일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는 영국의 해군 제독이 될 드레이크였다.

해적 두목 드레이크

1558년 25세의 나이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게 된다. 당시 영국은 아직 3류 해양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교황의 비호 아래 대서양을 독점하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여왕은 겉으로는 모른 척하면서도 1570년부터 남몰래 스페인 배를 덮쳐도 괜찮다는 특허장(사략선 면허장)을 슬그머니 발부하기 시작했다. 바로 2년 후인 1572년 드레이크는 범선 세 척과 72명의 용감한 바다신사들–해적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일컬은 말–을 이끌고 파나마 해협으로 가서 근거지를 마련한 후 해적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드레이크경(1545~1596)

요즈음은 '캐리비안의 해적'이란 영화로 인해 해적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13세기경 에게해와 지중해에서 해적이 출몰하였고 우리나라는 과거 끊임없는 왜구의 침략이 걱정이었으며, 요즈음은 소말리아의 해적이 여러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여왕의 비호 하에 해적을 인정하고 국익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1577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 지원금을 받은 드레이크는 마젤란 해협으로 항해하여 당시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던 남방대륙을 탐험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당시 지도제작자들이 만든 세계지도는 남극에 아직 사람의 손길의 미치지 않은 거대한 미지의 대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 해 12월 5척의 배를 타고 조사에 나선 드레이크는 선상 반란과 마젤한 해협의 강풍으로 네 척의 배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러나 결국 모선 펠리칸 호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단에 도착하여 남방대륙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남아메리카대륙과 남극대륙의 북단에 있는 이 해역을 그의 이름을 따서 드레이크 해협이라 부른다.

복원된 후 런던에 전시되어 있는 골든 하인드호

드레이크가 항해하던 시절 만들어진 세계지도. 남극에 거대한 대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왕 폐하는 안녕하신지요?

칠레에서의 첫 성공 이후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남아메리카 서해안을 북상하며 닥치는 대로 스페인의 도시와 배들을 습격하여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탈취하던 드레이크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정말로 귀한 선물 '카카페 호'를 만났다. 스페인 선박들 외에는 본 일이 없었던 이들이 안심한 틈을 타 카카페 호에서 탈취한 모든 보물에는 무려 36kg의 황금과 620톤의 은이 담긴 13개의 나무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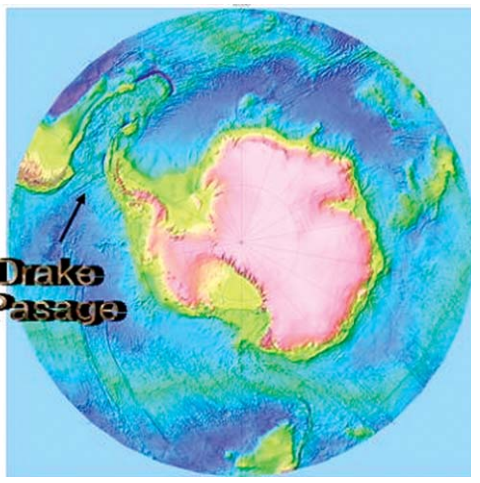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스페인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드레이크를 붙잡아 넘기라는 협박을 하며, 한편으로는 마젤란 해협에 대형 군함을 배치시키고 드레이크를 붙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의 귀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드레이크는 이를 피해 태평양 항로를 택하여 스페인 범선들에서 빼앗은 금 은 정향 등 온갖 보물이 잔뜩 실려 있던 모선 '골든 하인드(펠리칸호의 새 이름)'를 타고 1580년 9월 26일 무사히 영국 플리머스에 도착하였다. 영국에 도착해 "여왕 폐하는 안녕하신지요?"라며 처음으로 던진 질문과 함께 드레이크가 여왕에게 바친 막대한 재물은 당시 영국이 진 모든 부채를 갚고도 몇 년을 더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전해진다.

바다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 제패

노발대발한 스페인 왕이 대사를 통해 전한 드레이크를 처형하라는 항의에 대한 여왕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스페인 국왕의 영토를 공격하는 무례한 자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의 신하 중에는 그러한 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듬해 4월에 여왕은 스페인 대사를 드레이크의 배로 꾀어 들이고 대사 앞에서 드레이크를 향하여 "어서 일어서시오, 프란시스 경!"이라고 부르며 기사의 작위를 주었다. 해적 행위를 당당히 인정하면서 그에게 최상의 명예를 부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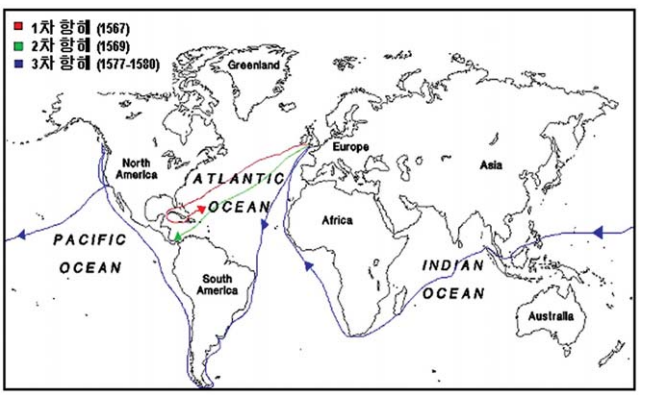
1581년 드레이크가 이끄는 함정에서 드레이크에게 작위를 수여하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계산된 당돌한 행동에 크게 노한 스페인 필리페 2세는 영국 해군을 무찌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면서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무적함대를 출동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1587년 4월 무적함대가 집결하여 있는 스페인의 항구들에 대하여 드레이크가 선제공격을 성공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듬해 7월 영국을 침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영국에 대파되었



드레이크 경의 이름이 붙어있는 해협

마젤란 일행의 세계일주 이후 1527년경 그려진 세계지도.



대서양을 시작으로 하여 세계일주를 한 드레이크의 항정

다. 바다를 지배하던 스페인의 세력은 급격히 몰락하고 대신 영국이 네덜란드와 함께 새 주인으로서 넓은 바다를 차지하는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 역사를 바꾼 비밀

드레이크는 마젤란 해협 주위에서 스페인이 자신을 벼르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를 피해 태평양을 돌아 약 2년 10개월이 걸리는 긴 항로를 택했다. 이로써 1580년 영국 플리머스에 입항한 드레이크의 항해는 영국인이 이룬 첫 번째의 세계일주 기록이 되었다. 이 항해는 또한 마젤란 일행의 세계일주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더구나 선장이 무사히 항해를 마친 세계일주로는 첫 번째의 세계일주다.

그런데 어떻게 드레이크는 미지의 태평양을 항해할 결심을 하고 이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가 공략하였던 카카페 호에서 드레이크는 더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을 얻었다. 바로 스페인 항해자들이 자신들만의 절대 비밀로 지켜오던 해도 '태평양 횡단 항로'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드레이크는 이 해도에 의지하면서 무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세계일주를 마칠 수 있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한 장의 지도였다.

탐험의 시대

이런 세계지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류는 '탐험의 시대'를 거쳐야 했으며, 1521년은 탐험의 시대의 정점을 이루는 마젤란 일행의 세계일주가 성공한 해이다. 이로부터 채 몇 년도 되지 않은 1527년경 제작된 대서양을 중심에 둔 세계지도는 지구과학에 혁명을 일으킨 '지구를 보는 새로운 눈' 판구조론이 시작되는 소박한 동기를 만들어준 중요한 보물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 지도는 벌써 유럽 사람들이 소박한 질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유럽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왜 그렇게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 이들 대륙이 언젠가 함께 붙어있었던 것은 아닐까?"

계화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계지도는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된 여러 발전을 거치고 탐험의 시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지도가 우리들의 손에 들어올 수 있기까지 인류가 겪어온 여정을 한 걸음씩 디뎌가 보기로 하자. S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해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지구환경과학부 학부장 겸 BK21사업단장으로 있으며, 해양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